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4호 【루게 제23006호】주제 99 (2010)년 2월 23일 (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 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 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서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대학생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새 세대들에게 만복을 안겨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

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 부장 김경희동지, 제1부부장들인 주규창동지, 리제강동지, 리제일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철주사범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건설건설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양농업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의 대학생예술소조원들이 출연한 공연무대에는 시이 이야기와 합창 《조선아 너를 빛내리》, 가야금병창 《수령님 같이신분 세상에 없습니다》, 여성중창

《고향집추억》, 쌍둥이노래 《장군님 따르는 마음》, 선동이 이야기 《필승의 신념》, 혼성중창 《우리의 소중한 대학시절》, 극 이야기와 노래 《수술칼에 비긴 두 제도》, 선동극 《15》, 남성독창 《내가 지켜선 조국》, 노래와 선동 혁명가극 《피바다》 중에서 《피바다가》, 남성중창 《은 나라의 대경사로세》, 《강성대국이 보인다》, 제담 《우리의 도덕》, 이야기와 노래 《건축인제가 되렵니다》, 《우리 학부 료리품평회》, 시와 합창 《돌파하라 최첨단을》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전투적기상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자기들의 크나큰 긍지와 행복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영원히 당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대학생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씩씩하고 생기발랄한 대학생들의 열정에 넘친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는 우리 대학생들의 고상하고 건전한 사상정신세계와 도덕품모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으며 주체교육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 우리 대학생들을 당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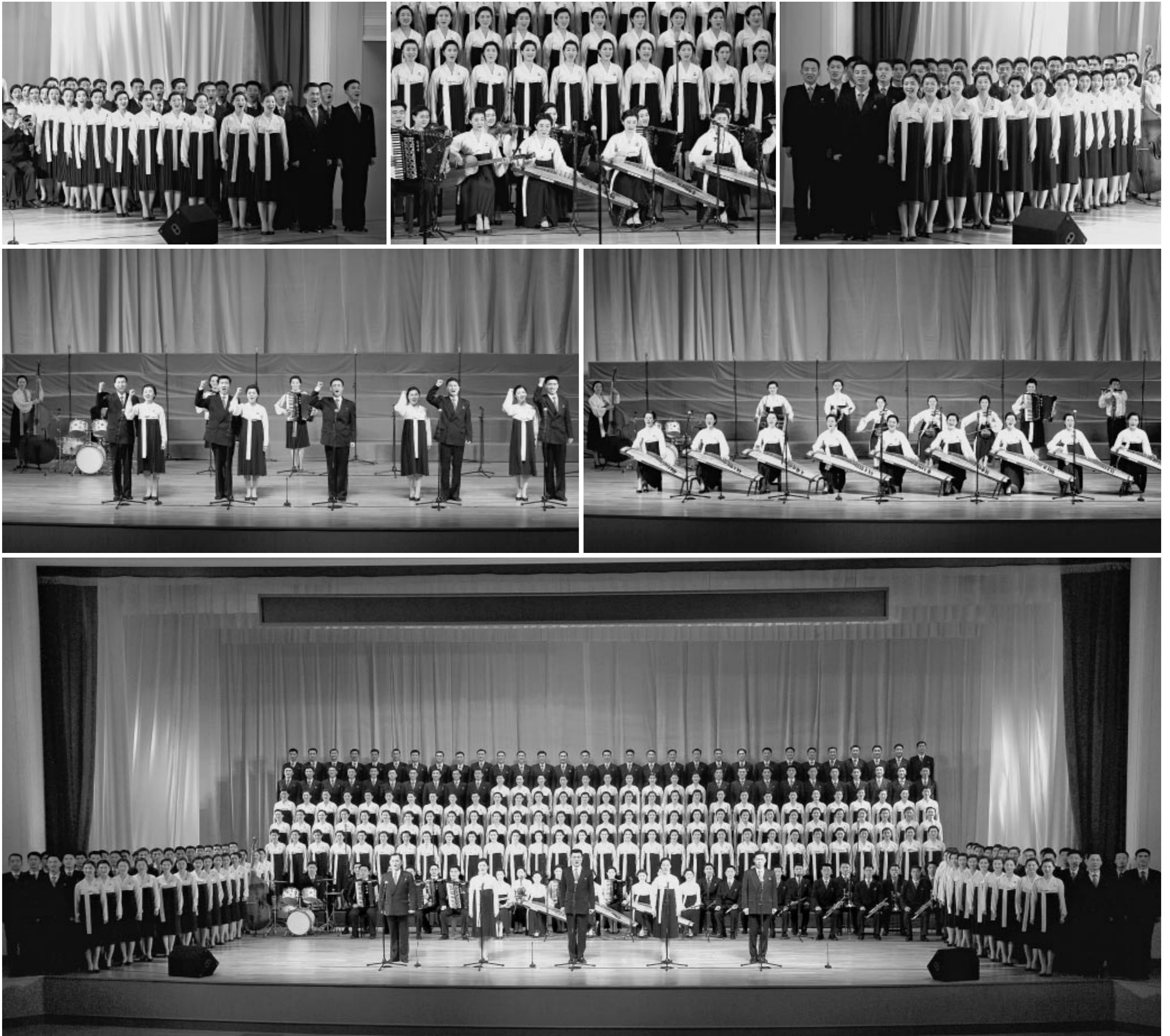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당의 후비대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자랑스럽게 펼쳐보인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 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생들이 선군 시대에 창조된 군인문화를 적극 배워 자기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우리 대학생들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일련단심 당을 따라 변함없이 충성의 한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참다

운 청년전위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미더운 새 세대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혁명과 건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유능한 민족간부들과 기술인재들을 많이 육성하여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한데 대해 우리 당은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갖춘 쓸모있는 인재로, 나라의 역군으로

튼튼히 키우는것은 우리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라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육교양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공연에 출연한 전체 대학생들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대대같은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주시는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굶주리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학습과 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혁명의 전위투사들로 역세계 준비해갈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윤광섭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인민배우 윤광섭동지의 서거에 김정은이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세계자주화위업의 위대한 수호자

초강도의 강행군을 이어가시며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전진하는 김일성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로 강화발전시키고 반제자주와 세계평화를 위한 인류의 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안영을 바라는 절절한 녀민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중주의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를 우크라이나 오스노비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검》 주체사상연구협회,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연구회들의 전국조정위원회와 출판보도, 과학, 교육부문의 인사들이 발행식에 참가하였다. 우크라이나 오스노비출판사 사장 겐나지 노가가 발언하였다. 그는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정일동지의 로작 《민중주의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는 진정한 민족주의의 본질과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 《일체화》책동의 반동성을 밝혀주어있는 것으로 하여 우크라이나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체는 역사상 처음으로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해명을 주시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혁명실천에서 민족주의와의 관계를 빛나게 해결하신 가장 견결한 혁명가이시면서 절세의 애국자, 진정한 민족주의의 자시였으며 국제주의자의 귀감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 《일체화》책동은 세계를 미국식 《자유세계》, 《민주주의세계》로 만들어 미국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지배하고 예속시키자는 것이라고 폭로하시고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라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있다.

새 사회건설에서 민족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오늘 우크라이나의 정세하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앞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출판보급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릴 것이다. *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굴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네덜란드 프린팅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10일 까뜨만두에서 진행되였다. 발행식에는 네덜란드 및 체육성, 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전국기자국립부를 비롯한 정부 성, 정당, 단체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나라 주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직원들이 초대되였다. 네덜란드 및 체육성 관계부서 네덜란드의 발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와 똑 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를 모신 국가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반공외국압살해동족에서도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되었으며 강성대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현정세하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따라배워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나가는것은 네덜란드 뿐만 많은 나라들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을 맞으며 그의 로작을 출판하는것은 네덜란드인의 자랑이며 기쁨이다. 로작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네덜란드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할것이다. 본사기자

전국기자, 언론인대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시였다

【평양 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기자, 언론인대회가 22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는 전당, 전군, 전민이 새해 공동사실과 당장전 65쪽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로, 김철로동계급의 편지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필승의 신심과 탄원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열리였다. 인민문화궁전 대회장에는 북대마이크를 역세게 틀어놓고 언제나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려는 긍지높이 찬만군민을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선군시대 대고조의 전군나팔수의 영예를 펼쳐가고있는 기자, 언론인들의 혁명적열의로 세차게 뛰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조선로동당기를 배경으로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퉁이와 《전국기자, 언론인대회》라는 글씨가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동지의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과 절정의 보복을 맞추어나가자!》, 《기자, 언론인들은 찬만군민을 대고 조직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진의 나팔수가 되라!》라는 구호들이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혁명

의 목소리, 전군의 나팔수가 더 높이 울려나오도록 언론공포를 본태있게 벌리기 위한 방도들이 서한을 구제적으로 명시되였다. 서한은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언론전선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밝혀주고있다. 경제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서한에서 당의 사상과 의도, 로선과 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출판보도활동을 벌려나가는것은 우리 당 언론건설의 첩경이라고 하시면서 언론활동원칙들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자, 언론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될데 대한 문제, 정연한 후비양성체제를 세우고 언론인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출판보도부문의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등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언론전선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서한에서 모든 기자, 언론인들이 혁명의 북대를 역세게 틀어놓고 강성대국건설대진에서 전진나팔수를 높이 울리며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한은 주체인론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강령적지침이며 기자, 언론인들이 출판보도활동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무적기치로 된다. 력사적서한에 접한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격정에 넘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서한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

철해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표시하시였다. 대회에서는 김기남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서한을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전제 기자, 언론인들이 북대와 마이크를 틀어쥐고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추동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과 업적에 토대하여 우리 언론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령을 마련해주시는 것에 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위대한 사상적기치수이다라는 사상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제하는 장군님의 언론에 대한 령도의 위대성은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나팔에 더욱 뚜렷이 표시되였다고 하면서 그는 총대와 함께 북대를 선군혁명의 위대한 무기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자, 언론인들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결렬히 옹호고수하는 사상적기치수이다》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언론건설과 활동에서 전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제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이 땅위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였으며 기자, 언론인들이 모든 활동을 인민대중적으로 벌리면서 제국주의자들의 반동

사실한 도서, 화첩들을 수많은 편지발행하여 군대와 인민을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강한 정신력을 소유자로 키우며 현열연예의 대풍모가 더 활짝 꽃피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와 함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진리성, 생활력을 깊이있게 해설한 중요한 기사, 편집물들과 도서들을 집필편집하여 인민군대를 사상정신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는 사회에 헌신, 헌군의 미풍이 꽃피도록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우리 기자, 언론인대오가 더욱 굳건히 다져진것도 커다란 성과이다. 보고자는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비범한 예지로 언론건설과 활동의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제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기자, 언론인들의 다함없는 호모와 신뢰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언론대오를 선군혁명위업수행의 믿음직한 부대로 키워주시고 불멸불후의 선군혁명명도로 강성대국의 위대한 날을 펼쳐나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우리앞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서한과 새해공동사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분출시켜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겨야 할 임무가 나서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3 면으로 계속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이 땅에 마련된 창조물들...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익하고...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익하고...

언제나 어머니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안주시 인민병원의료일군들... 어느 한 도로에 서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앞에 보이는 나지막한 산봉성...

자부심을 가지고 의로봉사... 수리공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수리공학연구소에서

수리공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수리공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더 많은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1월 인민경제계획을...

자랑 많은 일터

보기도만 해도 정신이 번쩍... 우리 나라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인민연구사업양심기적에 힘입어

인민연구사업양심기적에 힘입어... 인민연구사업양심기적에 힘입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제일본조선인축하단 여러곳 참관

리기식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일본조선인축하단이...

제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연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99년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모임에 참가한 제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하여...

팔레스티나 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평도일에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하여

《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하여... 《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

